

화관(花冠)에 관한 연구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A Study of the Whakwan

Na-Young Hong,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of whakwan(crown, 花冠) and classified the types of whakwan according to its structure. Whakwan seemed to originate from the custom of sticking flowers in the hair which was the reflection of human desire for pursuing the beauty. The whakwan first appeared in the Oriental painting during the Tang period and became fashionable in Song. It is not clear when whakwan was introduced into Korea, but it is assume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Song whakwan. The Korean record on whakwan showed for the first time in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whakwan was used for the costume of a dancing boy. Though the present type of whakwan appeared only once in the painting of the reign of King Seonjo, there are a number of whakwans in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dynasty. Now there exist three types of whakwan in Korea. The first type is similar to that of Chokduri in decoration. But it was made of paper, had the double structures of inner and outer part and was decorated by Yangkwan's vertical lines of gilt paper. The second type is the whakwan made of artificial flowers with various color cords and was widely used in Gaesung and Pyungyang regions. Finally, though the third type is similar to Sabangkwan, its outside was decorated gaudily by Dangchae (colorful painting) and it was assumed that dancing boys put it on their head for various banquets. Out of these three types, the first is most representative. Black was the popularly used color for the first type and this type was used either for brides on wedding ceremonies or for shamans or palace dancers. The second type was widely used in Gaesung and Pyungyang regions. But the differences in the shape of whakwan of the two regions show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ostumes in Korea. The third type was most likely to be used in the dance for palace banquets, but it is necessary to further investigate whether shamans actually wore this type of whakwan.

Key Words : Whakwan, Chosun-dynasty, Song-dynasty, flower, Booyongkwan

화관, 조선시대, 송, 삽화, 부용관

I. 서 론

꽃을 머리에 꽂아 장식하는 풍습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된 현상 중 하나로 자연발생적이라고 생각되며,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복식에서는 물론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꽃이란 시들기 마련이므로 조화(造花)로 대신하는 방안이 나타났고, 보다 영구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화관(花冠)을 만들어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화관은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중국과 동구(東歐)(그림 1)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화관은 적관(翟冠), 족두리와 함께 대표적인 여성의 예장용((禮裝用) 관모라고 할 수 있다.¹⁾ 오늘날까지 신부의 혼례복에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 내연(內宴)에서 기녀(妓女)나 등기(童妓) 여령(女伶)들이 쓰는 등 예를 갖추기 위한 목적 이외에 장식적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의 화관이 사용되었으며, 무녀(巫女)들의 관모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족두리와는 달리 화관의 유래나 기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종류나 유형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화관이 사용된 것은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만 해당할 뿐 일본에서 사용된 예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헌에서 화관과 삼화풍습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화관의 유물



<그림 1> 체코 여성의 화관

출처:『チェコスロバキアの民族衣装』

을 조사하여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다만 꽃을 머리나 관모에 꽂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화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꽃과 관련한 풍습으로 본 연구에 포함하여 다루었음을 밝힌다.

이는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의 전통복식문화의 한부분에 대한 이해를 돋고 전통 복식문화의 새로운 계승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본다.

II. 화관에 관한 문헌 고찰

1. 우리나라의 화관

화관이라고 할 때 좁은 의미로는 대궐에서 의식이나 경사가 있을 때, 반가(班家)에서는 혼례시나 경사시에 대례복 혹은 소례복을 입을 때 착용하는 수식물(首飾物)을 뜻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화관은 궁중에서 무기(舞妓) 혹은 무녀(巫女)가 썼던 사방관 부용관 등의 각종 관모를 뜻하기도 한다.²⁾

우리나라에서 화관에 대한 문헌기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궁중 정재에 사용된 화관에 대한 기록이 세종실록에 처음 나타난다. 즉 “부용관(芙蓉冠)을 녹운관(綠雲冠)과 함께 남악(男樂)의 정재(呈才) 관복으로 唐의 제도를 따라 하되 칠포(漆布)로 곡(縠)을 만들고 홍집으로 장식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³⁾

『악학궤범(樂學軌範)』 무동관복도설(舞童冠服圖說)에는 회례연시(會禮燕時) 부용관(그림 2 右)을 쓴다고 하였는데, “부용관은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며, 안은 웃칠한 배를 대고 외면에는 금은을 쓰고 각색으로 채색하여 부용을 그린다. 좌우에는 채색한 구슬로 꾸민 영락을 달고 또 자황색 都多益을 박은 자주색 초끈을 단다. …증락… 공연시(公宴時) 부용관(그림 2 左) 역시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다. 안은 웃칠한 배를 대고 외면에는 금은을 쓰고 각색으로 채색하여 부용을 그리고 모란을 꽂는다. 좌우에는 채색한 구슬로 꾸민 영락을 달고 또 자황색 都多益을 박은 분홍색 초끈을 단다. 회례연 때 쓰는 관과는 체제가 다르다.”⁴⁾고 하였다.



<그림 2> 부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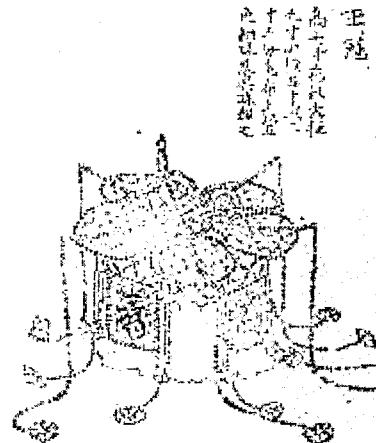
출처:『악학궤범』

여기에서 부용관의 모습은 부용이 연꽃을 의미하므로 연꽃을 그린 화관임을 알 수 있다. 각 정재에 따른 모습의 차이도 구별할 수 있으나, 녹운관은 녹색바탕에 구름무늬의 관(冠)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악공의 복식은 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에 중국의 것을 의방(依倣)하여 만들라는 영(令)이 있었으나 적삼의 제도와 꽃 그리는 법은 예전대로 만들게 해달라는 소(疏)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드시 중국제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만은 불 수 없다.⁵⁾

한편 연산군 12년에 "...취홍원(聚紅院) 등의 나인의 머리에 장식할 꽃을 오부와 의금부의 관원들이 공사(公私)의 화장(花匠)을 모아 오늘 오전 중에 다 만들라"는 전교가 있었다.⁶⁾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봉상시(奉常寺)⁷⁾에 조화(造花) 즉 가화(假花)를 만드는 장인인 화장(花匠) 6명을 둔다고 기록되어 있다.⁸⁾ 따라서 궁중행사시 장식용으로 조화를 만드는 일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화관이나 머리나 판모의 삽화장식으로도 일부 소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협의의 화관에 해당하는 구체적 문헌자료는 선조 23년(1590) 통신사편에 豊臣秀吉에게 보냈다는 『豐公遺寶圖略』에 그림(그림 3)과 함께 남아 있다. 여기에 기록된 복식은 일본 승려에 의해 정리되고 도식화되었기 때문에 분명치 않으나 재료와 치수 장식문양 등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원문에는 '玉冠'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주옥으로 만들어진 모양에

서 명명된 것으로 보이며 화관류로 추정된다. 毛布로 싸고 높이는 7寸인데 화문의 큰지름은 9寸, 작은 지름은 3.5~5寸이며 오색의 가는 구슬(細珠)과 진주로 연결되어 장식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양민속박물관의 화관 유물(그림 4)과 유사하며 지름이 7.8cm 높이가 9cm이다.⁹⁾



<그림 3> 玉冠

출처:『한국복식』, 12호



<그림 4> 화관

출처: 온양민속박물관

2. 중국의 화관

현재 우리나라의 화관과 같은 모양의 관모를 중국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관의 의미 그대로 꽃을 머리에 얹은 모양의 관모는 당시대에 처음 나타난다. 전세(傳世)되고 있는 唐人畫에 부인이 머

리에 화관을 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 그것은 중국에서 목단(牧丹) 재배가 유행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들은 모두 중·만당기 작품에 속한다. 백거이(白居易)의 시에도 “짙은 목단화 한 떨기(叢)의 가치는 중증계급 10戶 분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목단 재배가 상류층사이에서 유행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목단(牧丹)은 중국의 전통적인 꽃으로 옛날부터 ‘花王’이라고 불리웠다. 부귀, 번창의 상징으로서 중국 민족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시가, 공예, 회화, 도안의 주제로 사용되어 왔다.¹⁰⁾ 목단은 중국 원산으로서 그 재배의 역사도 오래되어 BC 2세기에 약용작물로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남북조시대에 관상식물로서 알려지기 시작하여 당대에 재배가 성하게 되었다.¹¹⁾ 송대에 들어와서 목단의 품종이 많이 늘어나 119종을 넘고, 명 청대에도 계속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한편 당대의 여성을 그리고 있는 잠화사녀도(簪花女圖)(그림 5)에 화관으로 사용된 것은 생활에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그림의 배경에 있는 목련은 봄에 피는 것이고, 의복의 표현은 한 여름의 정경이다. 또한 그림의 여성은 머리장식을 완벽히 한 후 꽃을 덧달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沈從文은 이를 일종의 사족(蛇足)과 같은 것으로 실제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그림 중 한 여성은 금 목걸이를 하였는데 이런 양식 역시 당·송대에는 없는 것이며, 웃 위에 목걸이를 하는 것은 청대의

조복(朝服)에서 상용하던 것이다. 특히 청조의 『皇朝禮記圖』에는 같은 모양의 목걸이가 보이므로 이 그림은 옛 그림에 기초하여 송대나 그 이후에 모사하여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인 것이다.¹²⁾

즉, 주방(周昉)의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는 잠화사녀도는 송대의 화가가 송대의 제도를 이용하여 당대의 상황을 그린 것이고 당대의 그림을 모사하되 일부는 손을 대어 장식을 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복은 당의 양식이지만 의복의 문양의 표현은 당대의 규격에는 맞지 않으며, 머리에 꽃을 단 형식도 당대에 출현하기엔 지나치게 이르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화관은 당대에 처음 보이지만¹³⁾ 송대에 유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화관은 오대와 송대 회화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 특히 <그림 6>의 상단에 있는 화관은 우리나라의 개성지방 신부의 화관과 그 모습이 유사하여 양자간의 영향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하지만 회화에서 보이는 송대의 화관은 <그림 6>의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 복두 등의 관모에 꽃장식을 더한 것이었으며 중국의 화관은 이 2가지 양식이 대표적이다.



<그림 6> 五代(上段) 및 宋(下段) 시대의 화관
출처:『중국고대복식연구』



<그림 5> 잠화사녀도
출처:『중국고대복식연구』

송대에는 도시 여성들은 빈부를 막론하고 관(冠)과 소(梳)를 사용하였으며, 계절에 맞는 꽃을 머리에 꽂기도 하지만, 화관을 쓰기도 하였다.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화관은 대개 여러 가지 색의 羅絹이나 草를 가지고 만들었다. 물론 어떤 것은 금, 은, 대모, 구슬도 가공하여 만들었다. 이에 따라 화관의 양식은 북송(北宋)시대에 크게 발전하였다. 여성들은 특히 큰 머리에 큰 빗(大髻大梳)을 특히 좋아했을 뿐 아니라 화관을 중시하였다고 한다.¹⁴⁾

북송시대 변량(卞梁)의 시장에는 화관을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 다수 있었고, 화관을 수리하는 전문 직업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무림구사(武林舊事)』, 『도성기승(都城記勝)』 등에 기록되어 있다.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上國寺내의 대중시장' 조에 "양 복도를 차지하고 여러 절의 비구니가 각종 모자, 끈, 조화, 머리 장식을 판다."라는 기록이 있다. 송대에는 출가하여 佛門에 든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당대와 같은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없어 자수(刺繡)한 여러 가지와 화관 머리장식 등을 만들어 전업을 삼았기 때문에, 북송의 大相國寺의 복도는 완전히 비구니에 의해 부녀의 수식용품을 파는 노점상으로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송(南宋)의 『몽양록(夢梁錄)』 13 '제백잡화'조에도 "길거리에 소수 공예인 중에 각종 빗, 거울, 관 등을 갖고 때때로 돌아 다니는 자가 있어 필요에 따라 부를 수 있다. 또 어깨에 띠를 매고 나무빗, 빗 등 을 파는 사람이 있고, 라백과 납으로 만든 계절 꽃을 만들어 길 모퉁이에서 소리쳐 판다."라는 기록이 있어¹⁵⁾ 우리나라의 방물장수를 연상하게 한다.

화관의 유행은 당시 꽃을 기르는 기풍과 무관하지 않았고 보는데, 많은 경우 목단이나 작약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낙양화목기(洛陽花木記)』, 『목단보(牡丹譜)』, 『작약보(芍藥譜)』에 열거된 특별한 명칭의 품종에서는 여러 名花가 모두 모방되어 여성의 머리장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¹⁶⁾

당시의 화관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었는데, 대개는 머리에 가득 장식했고 발계(髮髻)와 꽈 결합시킨다. 재료는 나견(羅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다시 생화를 꽂는 것이 유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羅나 통초(通草)로 생화를 모방하여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송대에는 특히 생화의 목단이나 작약 혹은 羅로 만든 선명한 색의 꽃을 여성의 머리에 꽂는

것이 유행했으며, 이것은 왕관(上觀)의 『작약보(芍藥譜)』 서문에 서술되어 있다. "朱家の 화원에 심은 꽃은 5~6년주에 달한다. ……양주(남방) 사람들은 西洛(북방) 사람들과 한가지로 귀천이 없고 '관', '루'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꽃은 수십 종에 달하고" 라 하여 꽃 재배의 유행과 여성의 머리에 꽂던 조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¹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화관은 당대에 출현하여 송대에 유행을 하였으나 명 청대까지 그 유행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주(周)대의 후비(后妃)의 예관으로 사용되던 적관(翟冠)이나 봉관(鳳冠) 등은 명(明)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

III. 유물을 통해 고찰한 조선조 화관의 유형과 특징

현재 문헌이나 유물 등으로 확인 가능한 우리나라의 화관은 형태상의 특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유형 I은 조선시대의 혼례복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형태이고 이것은 모두 기본이 되는 틀 위에 각종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다.

유형 II는 개성이나 평양지방의 신부 혼례복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이 실제 꽃모양을 모방하여 만든 관이다.

유형 III은 사방관과 유사한 형식으로 꽃장식이나 보석장식을 꾸며 달지 않고, 대개 당채(唐彩)로 꽃을 그려 넣은 것이다.

1) 유형 I

문헌에는 궁중이나 반가에서 사용되는 화관의 틀이 검은색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실제 유물을 살펴보면 색상이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박물관소장 유물은 대부분이 검은색이나 그 중에 녹색 화관이 6점이다. 유물들의 크기는 대략 지름의 틀이 7~12.5cm, 높이가 9~15cm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녹색 화관은 함흥지방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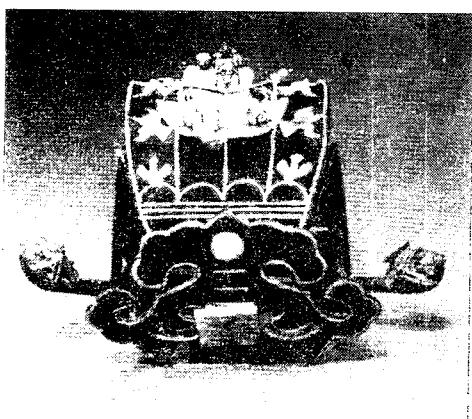
이 유형의 화관은 관이 내부와 외부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궁중이나 반가에서 주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유물률 고찰한 결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즉, 화관의 외부틀 즉, 외벽이 한층으로 된 유형 I-②, 외벽이 이중으로 된 유형 I-④, 외벽이 펼쳐진 부분 없이 8각의 접두부만을 가진 유형 I-⑤로 구분하였다.

내부틀은 상부가 대체로 남성의 양관(梁冠)에서 보이는 梁과 유사한 세로선이 보인다. 그 세로선은 대체로 3줄이며 대부분 금종이를 오려 붙여 만들었지만, 일부는 구슬을 연결하여 만들었다.

· 유형 I-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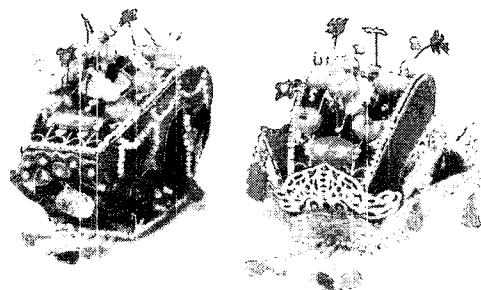
유형 I-②는 외부틀이 한 층으로 되어있고 접두(接頭) 부분이 앞뒤로 긴 사각을 이룬다. 유형 ②의 화관들 중에서도 세종대 박물관(그림 7)과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관은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내부 틀의 중앙부위에 봉(棒) 대신에 옥으로 조각한 새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고 그 위에 산호 구슬과 스프링 위에 올린 나비의 축수모양 장식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은 궁중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곳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그림 7> 궁중 화관
출처 : 세종대박물관

유형 I-②의 화관 중 반가에서 사용하던 것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민속박물관 소장 화관(그림 8 左)과 같이 족두리와 유사한 장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화여대 담인복식미술관, 숙명여대 박물관 소장에 소장된 화관도 세부 장식만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유형에 속하는 화관이다. 석옹황이 화관 윗면의 전후에 장식되고 중앙과 양 옆부분에는 진주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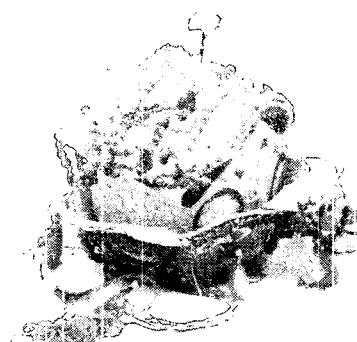
화, 비취 등 각종 옥 장식이 봉(棒) 모양으로 5~7개 정도 얹혀있다. 화관의 앞 중심에는 진주와 산호로 엮은 줄에 금전지로 쌓은 술장식이 달려 있다. 이 술장식은 궁중용 화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반가의 화관 중에도 술이 달린 것과 아닌 것이 섞여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혼례용 화관에만 술을 단다는 설이 있기도 하나 개화기의 사진을 고찰한 결과, 기녀의 화관에도 술장식을 단 것이 있어 그리 엄격히 용도를 제한해 사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림 8> 반가의 화관
출처 : 석주선 민속박물관

· 유형 I-④

유형 I-④는 외부틀이 두층이면서 접두부가 6각이다. 유형 ④에 속하는 화관은 다시 2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②와 같이 검은 색에 화관의 외벽만 2층으로 된 형식(그림 8 左)인 ④-1이고, 국립민속박물관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도 같은 유형의 화관이 소장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황색 홍색 녹색 등을 사용하여 색상이 화려한 형식(그림 9)인 ④-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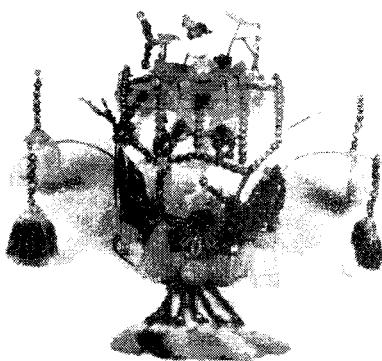


<그림 9> 화관
출처 : 한양대박물관

이며, 한양대학교 박물관 외에도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안동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④-2형은 내부관이 검은 색이 아닌 녹색이며, 양(梁)도 진주 출로 장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부의 틀이 황색과 녹색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또한 내부관의 윗면의 장식도 각종 보석보다는 모조 보석을 달아 혼례용이라기 보다는 각종 기녀들이 무용에 사용하였던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 유형 I-④

유형 I-④는 접두부가 8각이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유형 ④에 속하는 화관은 외벽이 바깥으로 펼쳐진 것 없이, 머리 위에 얹는 부분이 팔각 띠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에는 모두 둥근 옥을 장식하고 있다. 그 위에 양관과 같은 내부관이 있는 형식인데, 모두 녹색이며, 유달리 구슬장식이 많은 것과 화관의 양옆으로 넓게 펼쳐진 스프링 장식과 스프링 장식 중 외부로 펼쳐진 것의 끝에는 술장식이 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양식은 『豐公遺寶圖略』(1590)의 옥관 그림(그림 3)과 매우 유사하며, 온양민속박물관(그림 4)을 비롯해 광주시립박물관(그림 10), 태평양화학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등에도 같은 유형의 화관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 10> 화관
출처 : 광주시립박물관

2) 유형 II

유형 II는 개성이나 평양지방의 신부혼례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이 실제 꽃모양을 모방하여 만든 관이다. 평양지방의 신부 혼례복에는 색색의 꽃과 모울사로 장식한 화려한 모양의 족두리를 썼다¹⁹⁾고 하나 이것은 화관이란 명칭이 더 적합하여 보인다

(그림 11).

개성지방의 신부의 수식(首飾)은 가체로 높이 틀



<그림 11> 평양신부의 화관
출처 :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어 올린 머리에 색색의 모울사로 장식한 큰머리를 하였는데 2가지 양식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큰머리에 각종 모울사 꽃을 얹어 꾸민 화관이고(그림 12) 평양의 화관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다른 하나는 밀화 진주 금파로 장식한 개성 고유의 족두리를 쓰고 진주가 달린 장방형의 사색판에 색색의 꽃과 모울사로 꾸민 진주판을 꽂위에 올려 놓은 것이다(그림 13).

개성과 평양에서 착용하였던 화관들은 조화를 이용한다는 점과 그 모양에서 특히 오대의 화관(그림 6의 상단)과 유사한데, 고려조의 수도였던 개성지방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평양에서 이러한 유형의 화관이 사용되었던 것은 중국 화관의 영향을 추측하게 한다.



<그림 12> 개성신부의 화관
출처 :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그림 13> 개성신부
출처:『북한지방의 전통복식』

3) 유형 III

유형III은 보석이나 꽃장식이 없는 형태이다. 사방관의 형태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당채로 모란 꽃이나 구름, 봉황, 학, 불노초, 태극 따위를 그려 넣었다. 이러한 화관류에 대해서 각 박물관 도록에는 일반적으로 화관과 부용관이라는 명칭을 병기(併記)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14>에서와 같이 궁중 무용에 사용된 화관 중에는 연꽃모양을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관도 존재하므로 이 유형의 화관의 명칭과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會禮宴을 回甲宴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림 14> 부용관
출처:『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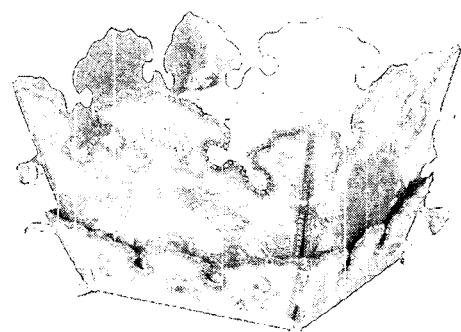
담인복식미술관과 한양대학교박물관의 도록에는 회갑에 사용한 노인이 사용하는 관이라는 설명이 있으나²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양대학교 박물관 (그림 15)의 유물은 각기 학

(鶴)과 봉황문(鳳凰紋)이 그려진 것이며, 석주선박물관소장 유물은 관 외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6). 온양민속박물관에는 이 2가지 형의 화관이 다 소장되어 있고, 담인복식미술관에도 봉황이 그려진 서로 높이가 다른 관 2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 15> 회례연에 사용되는 화관(부용관)
출처: 한양대학교박물관



<그림 16> 부용관
출처: 석주선 민속박물관

그런데 앞서 서술하였듯이 『악학궤범』에 의하면 “회례연시(會禮燕時)이나 공연시(公宴時) 무동(舞童)이 부용관을 쓴다. 회례연(會禮宴)에 사용하는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며, 안은 웃칠한 베를 대고 외면에는 금은을 쓰고 각색으로 채색하여 부용을 그린다. 좌우에는 채색한 구슬로 꾸민 영락을 달고 또 자황색 都多益을 박은 자주색 초끈을 단다고 하였다. 공연시 사용하는 부용관은 회례연 때 쓰는 관과는 체제가 다르다. 역시 종이를 배접하여 만들고, 안은 웃칠한 베를 대고 외면에는 금은을 쓰고 각색으로 채색하여 부용을 그리고 모란을 꽂는다. 좌우에는 채색한 구슬로 꾸민 영락을 달고 또 자황색 都多益을 박은 분홍색 초끈을 단다.”²¹⁾고 하였다. 따라서 관의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끈의 색이나 꽃을

꽃는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의 녹운관에 대해서는 『악학궤범』에도 그 기록이 없지만 그 명칭으로 보아 현재 부용관으로 알려진 화관 중에는 구름문양을 그런 것이 많아 녹운관에서 유래된 관모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처용무를 추고 있는 그림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을 착용한 무동의 모습이 보인다(그림 17의 우).



<그림 17> 회화에 보이는 무동의 관
출처 : 기사계첩, 이화여자대박물관소장

4) 삽화풍습

머리에 꽂을 꽂는 풍습의 기원을 굳이 문헌에서 찾고자 한다면 신라시대의 향가인 현화가를 예로 들수 있다. 한편 『악학궤범』 처용관복도설에는 처용의 복식으로 사모에 모란꽃과 복숭아 나무가지를 꽂았으며 기사계첩의 그림에서 확인된다(그림 17 좌).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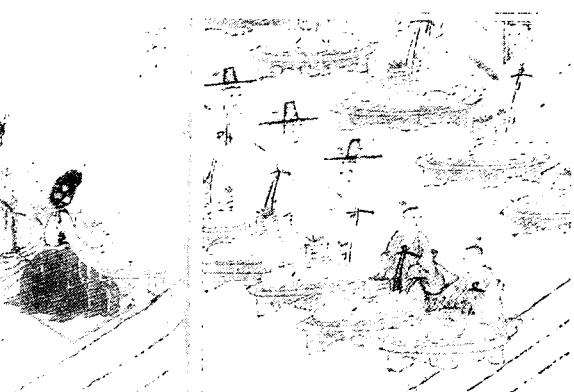


<그림 18> 진찬례 참가인물 삽화
출처 : 『수원능행도』

삽화풍습은 우리나라에만 한한 것은 아니고 동남 아시아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늘날에도 그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이 머리에 꽂을 꽂는 것은 그리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물론 삼국 시대 고구려에서 삽조우(插鳥羽)의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농경생활을 하면서 식물성 재료인 꽃이나 꽃·풀 무늬의 금속제 관식(冠飾)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모, 특히 각종 금은 등의 귀금속류와 보석류로 장식한 관모가 신분 상징을 겸하여 사용되었고, 따라서 꽂을 꽂거나 화관을 쓰는 것이 신분상징의 수단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시대의 어사화(御史花)는 장원급제(壯元及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상징적 삽화풍습으로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무동이나 무희가 궁중연회에서 삽화를 할 수 있었을 뿐으로, 일반인의 삽화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조선조의 회화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의 회화 중에는 적지 않게 머리에 꽂을 꽂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머리에 꽂을 꽂는 것은 무동이나 궁중 정재의 무기(舞妓)들은 물론이고 각종 궁중의 연회(그림 18)와 반가의 경사(그림 19)에서 행해졌으며 꽂을 꽂는 것은 여성에 한한 것이 아니고 잔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관모나 머리에 꽂을 꽂은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송대에도 이와 같은 남성



<그림 19> 회혼례 참석인물의 삽화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도』

<표 1> 화관의 유형분류

| 분류 | 유형 I | | | | 유형 III |
|-------|-----------|----------------|-------------------------------------|------------|-----------|
| | 양식 | 구조 | 특징 | 분류 | |
| 양식 | | 외면이 1층 | 외면이 2중, 접두부 6각 | 접두부 8각 | 사방관형 |
| 구조 | 외면이 1층 | 외면이 2중, 접두부 6각 | 종이로 만든 흑(녹)색관에 족두리와 같은 보석장식, 혼례 의례용 | 접두부 8각 | 무용시, 무동 |
| 유형 II | | | | 삼화 | |
| 양식 | | 관위에 모을사조화 | 모을사조화 | 족두리+진주판+조화 | |
| 구조 | 관위에 모을사조화 | 모을사조화 | 개성지방 신부용 | 개성지방 신부용 | 모자(모발)+삼화 |
| 특징 | 평양지방 신부용 | 개성지방 신부용 | 경사사, 남녀참석자 | 경사사, 남녀참석자 | |

의 삽화풍습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송대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머리에 꽂을 꽂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이를 여성만이 즐겨한 것이 아니었다. 즉 경사나 절기를 환영하기 위해, 또는 길상(吉祥)을 표시하기 위해 꽂을 머리에 꽂았으며, 국가에 대사가 있으면 제도에 따라 황제와 수많은 시신(侍臣)이 같은 꽂을 꽂고 마을을 다녔다.

남성이 꽂을 꽂은 古事로서 『청파잡지(淸波雜誌)』 권3에 꽂을 꽂은 인물들이 재상(宰相)이 되었던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재상의 전설을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지만 꽂을 꽂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재상과 꽂을 꽂는 것과의 관계는 예를 들어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보면 황제로 부터 행렬의 하역(下役)에 이르기까지 모든 꽂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다. 재료 뿐만 아니라 색채도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르고 계급에 따라 사용의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의 잔치 등 경사에는 물론이고 궁중연회 등에서 각종 가무를 하는 인물은 물론

이고 행사에 참여하는 남녀가 꽂을 것이 당시 동양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풍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화관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의 표현으로 꽂을 머리에 꽂는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삽화풍습은 오늘날까지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모의 출현 특히 각종 금은 등의 귀금속류와 보석류로 장식한 관모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사실적인 꽂을 모방하여 만든 관모도 적지 않은 데 그 예가 회화로서 처음 나타난 것이 당대였으며 유행을 이룬 것은 송대였음을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송대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꽂을 꽂는 것이 유행했을 뿐 아니라 꽃모양의 장식을 한 화관도 성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관의 출현이 언제부터인지 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송대의 화관이나

삽화(插花)의 유행이 고려시대에 영향을 적지 않게 주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세종대부터이며 그나마도 무동의 복식에 한해서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화관의 형태는 선조대에 가서야 확인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조선말의 유물만이 남아 있을 뿐 문헌자료는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화관은 크게 3가지이다. 그 중 첫 번째인 유형 I은 오늘날까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석의 꾸밈새는 쪽두리와 비슷하지만 그 틀을 종이로 만들되, 외부와 내부의 이중구조로 만든다. 내부의 관은 금지(金紙)로 양관의 양(梁)과 같은 세로선이 장식되어 있다. 이 유형의 화관은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혼례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것으로 화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색채는 흑색이 대표적이지만 녹색 화관도 있으며, 신부용과 무녀나 기생이 사용하던 것도 있다. 구조와 색으로 용도를 나누어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함흥지방의 화관은 녹색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형 I은 구조에 따라 다시 외면이 한층인 것, 외면이 이중이며 접두부분이 육각인 것, 접두부가 8각인 것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II는 개성지방과 평양지방에서 혼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각색의 모울사로 조화를 만들어 쪽두리나 큰머리에 장식한 것이다. 두 지방간에 화관의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성지방에서는 2가지의 양식이 존재해 우리의 전통복식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의 화관은 특히 오대의 화관과 유사한 형태인데, 고려조의 수도였던 개성지방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평양에서 이러한 유형의 화관이 사용되었던 것은 중국과 우리 복식과의 상호영향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형 III은 사방관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외면을 당체로서 화려히 꾸민 것인데 각종 연회에 무동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화관은 무용에 사용된 것 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무녀나 일반인도 사용했는지, 혹은 각 모양에 따라 명칭과 용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유형은 별도의 모자를 만들지 않고 꽃을 머리나 모자에 꽂는 삽화 풍습이다.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 궁중이나 반가를 막론하고 잔치에는 가무를 하는 무기(舞妓)와 행사에 참석하는 남녀가 머리에 꽃을 꽂았다고 본다. 이는 굳이 따져보자면 오늘날의 코사지의 개념 정도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및 미주

- 『經國大典』(1978), 일지사.
 - 김병모(편)(1995), 『한양대학교 박물관 수장 유물선』, 한양대학교 출판원.
 - 김영숙(1988), 『한국복식사사전』, 민문고.
 - 김지연·홍나영(1999. 3), “쪽두리에 관한 연구”, 『복식(服飾)』, 44권, 한국복식학회, 243~258
 - 단국대학교 부속 석주선기념박물관(편)(1998) 『북한지방의 전통복식-개화기이후~해방전후』, 현암사.
 - 단인복식미술관(편)(1998), 『단인복식미술관-이화여자대학교 단인복식미술관개관기념도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성실(1994), “『豐公遺寶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仁宗 服飾”, 『韓國服飾』 12호, pp.105~118.
 - 박성실 이수옹(역)華橫(저)(1992), 『中國服飾史』, 경춘사.
 - 『文淵閣 四庫全書』
 - 石山影(監修)(1983), 『チェコスロバキアの民族衣装』, 東京: 恒文社.
 - 석주선(1993), 『冠帽와 首飾』, 단국대학교 출판부.
 -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常務印書館.
 - 柳忠英(1987), 『牡丹文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周錫保(1983), 『中國古代服飾史』, 丹青.
 -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 1) 김지연·홍나영(1999. 3), “쪽두리에 관한 연구”, 『복식(服飾)』, 44권, 한국복식학회, p.244.
 - 2) 김영숙(1988), 『한국복식사사전』, pp.545~6.
 - 3) 『세종실록』, 13년 8월 9일(신축), 9월 6일(정묘), 13년 정묘, 신축, 15년 2월 11일(을미).
 - 4) 『국역 악학궤범(國譯 樂學軌範)』 권2, p.190.
 - 5) 『세종실록』, 14년 4월 24일(임자).
 - 6) 『연산군일기』, 12년 6월 12일(경신).
 - 7) 조선시대 祭享과 證號에 관한 일을 알아 보던 관아.
 - 8) 『경국대전』(1978), 일지사, p.524.
 - 9) 박성실(1994), “『豐公遺寶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仁宗 服飾”, 『韓國服飾』 12호, p.111.

- 10) 柳惠英(1987). 『牧丹文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 11) 앞 글.
- 12)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常務印書館, p.232.
- 13) 박성실 이수옹(역) 華梅(저)(1992), 『中國服飾史』, 경 춘사, p.160.
- 14) 沈從文(1981), p.317.
- 15) 앞 글.
- 16) 앞 글, p.319.
- 17) 앞 글, p.232.
- 18) 단국대학교 부속 석주선기념박물관(편)(1998), 『북한 지방의 전통복식-개화기이후~해방전후』, 현암사.
- 19) 앞글.
- 20) 김병모(편)(1995), 『한양대학교 박물관 수장 유물선』, p.396.
담인복식미술관(편)(1998), 『담인복식미술관-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개관기념도록』, p.181.
- 21) 『국역악학궤범』 권2, p.190.
- 22) 앞글.